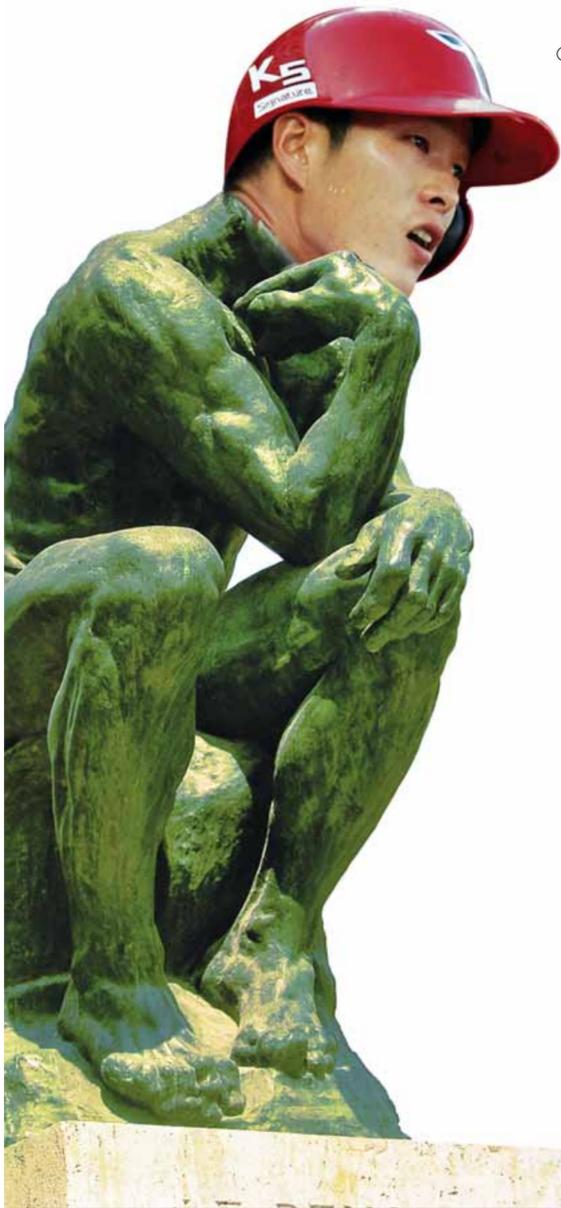


# 노수광은 생각한다, 고로 성장한다



김주찬 공백에 선발 기회 잡고 펄펄

9구 승부 끝 공 못 맞추니 화가 났다  
김 승부로 투수 짜증나게 하겠다 생각  
다음 경기 4안타 치고...호수비까지

프로야구 무대에서는 매일 생존 싸움이 벌어진다. 상대를 넘기 위해,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 선수들. 고민과 변화는 그들의 숙명이다.

KIA 노수광은 얼마 전 경기 중에 깨달음을 얻었다. 지난 24일 NC와의 홈경기로 이야기가 거슬러 올라간다.

김주찬의 부상 속에 노수광은 이날 이를 연속 2번 타자로 선발 출장했다. 상대 투수는 이재학이었다. 첫 타석을 헛스윙으로 시작한 노수광은 1B-2S에서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돌아섰다. 3회 세 번째 타석에서도 1루를 밟는 데 실패했다. 초구 스트라이크에 이어, 헛스윙으로 불리한 볼카운트에 몰렸던 그는 9구까지 가는 승부를 펼쳤지만 중견수 플라이로 아웃이 됐다.

노수광은 "이재학의 체인지업에 헛스윙을 하고 공을 못 맞췄다. 9구 승부를 하는데 화가 나기도 했다. 투수도 내 입장이 되어서 짜증나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바로 다음 타석에서부터 타격 포인트를 뒤로 가져왔다. 자세를 낮추고 최대한 끝까지 보면서 치자는 느낌으로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노수광은 이재학에게 안타를 뽑아내지는 못했지만 이날 마지막 타석에서 NC 마무리 임창민을 상대로 안타를 기록했다. 그 느낌은 다음 경기로 이어졌다. 하루 쉬고 전제된 26일 kt와의 경기에서 노수광은 4안타 행진을 했다. 첫 타석에서 풀카운트 승부 끝에 좌익수 플라이로 몰라냈지만 이후 4타석을 모두 안타로 연결하면서 펄펄 날았다.

27일에도 멀티히트를 기록하는 등 고민과 변화를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KIA가 2-0으로 앞서던 4회초, 지크가 김사연과

이재학에게 안타를 내주면서 1사 1·2루에 몰렸다. 그리고 심우준이 타구가 좌익수 쪽으로 향했다. 1사 만루가 되는 것 같았지만 라인 드라이브성으로 날아온 공을 잡은 노수광이 3루로 공을 던졌고, 2루에서 달려오던 주자 김사연이 아웃이 됐다. 좌전 안타가 땅볼로 둔갑한 순간이었다.

이날 경기 전 노수광은 "조금씩 공의 궤적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수비하는 데 여유가 생긴 것 같다. 앞으로 낮게 들어오는 타구 처리가 어렵기는 하다. 어느 타이밍에 들어야 하는지 망설이게 되는 데 전체적으로 공의 궤도를 그리면서 수비를 하게 되면서 많이 편해졌다. 긴박한 상황에서 실수를 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었다.

그리고 이날 노수광은 긴박했던 상황에서 좋은 수비를 선보이면서 추격의 흐름을 끊었다.

경기가 끝난 후 이범호는 "나는 클러브로 신호만 했는데 그걸 수광이가 잘 보고 던져주었다. 공격도 되고 여유가 생기니까 시야가 넓어진 것 같다"고 후배를 칭찬했다.

노수광과 환상의 호흡을 과시했던 이범호도 이날 고민의 결과물을 얻었다. 세 경기에서 침묵을 했던 이범호는 두 차례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정도로 홈런에 살짝 부족한 2루타 2개를 때려내면서 승리를 이끌었다. 이범호는 "지치기도 했고, 실수 없는 상황이었다. 타격이 좋지 못했는데 지난해 후반기 했던 느낌으로 해보려고 했다. 다리를 조금 오른쪽으로 공이 잘 안 보여서 몸을 열고 공을 보면서 친 게 도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생존을 위한 고민으로 그들의 시간은 오늘도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서동욱 만나갈 것이다, 우타자로”

덕아웃 **T** 특독

▲오늘부터는 안 나갑니다

김기태 감독을 깜짝 놀라게 한 서동욱이었다. 서동욱은 27일 kt와의 경기에서 6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장했다. 그리고 서동욱은 처음 두 타석에서는 평소와 다르게 오른쪽으로 섰다. 서동욱은 좌우 타석에 서는 스위치 타자지만 KIA에 와서는 홈런 좌타석에서 서었다. 하지만 결과는 연속 삼진으로 좋지 못했다. 결국 두 타석 만에 끝난 서동욱의 우타자 도전.

김기태 감독은 "오른쪽 타석에서 연습을 하길래 밸런스 맞춘다고 그러는 줄 알았다"고 웃으면서 "아마 오늘부터는 (우타자로) 안 나갈 것이다. 캠프에서부터 스프링캠프까지 연습을 해도 어려운 것이다"고 좌타자 서동욱을 기대했다.

▲형 없어도 된다고 전해주세요

김주찬의 공백을 잇는 공격이었다. KIA는 지난 23일 NC와의 경기에서 김주찬의 부상이라는 큰 악재를 만났다. 우타자로 24일 시즌 세 번째 무득점 경기를 했던 KIA는 25일에도 타선의 집중력 부족으로 10안타를 치고도 2-8 패를 기록했다. 그러나 26·27일 kt와의 경기에서는 잠자던 방망이가 불을 뿜었다. 13-0 대승에 이어, 8-3 승리를 거뒀던 27일. 이날 두 개의 2루타 포함 3안타를 쳤던 이범호가 수훈선수가 됐다.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던 이범호를 향해 나지원은 "주찬이 형 없어도 된다고 말씀해주세요"라며 웃음을 터트렸다. 그래도 김주찬과 단짝인 이범호는 "(세 경기에서 안타가 없었는데) 주찬이가 없어서 심심하고 힘이 없었다"며 친구를 찾았다.

/김여울기자 wool@

# 강정호 4타점...피츠버그 10-1 대승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가 한 경기 개인 최다인 4타점을 쓸어담고 팀 승리를 견인했다.

오승환(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은 1점 차 상황에서 완벽한 투수로 시즌 6호 세이브를 기록했다. 김현수(볼티모어 오리올스)는 부상 복귀 이후 두 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으나 팀의 2연패를 막지는 못했다.

강정호는 28일 미국야구 시애틀 매리너스와 인터리그 홈 경기에 5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1볼넷 4타점으로 활약했다.

강정호는 시즌 타율 0.241에 35타점을 기록하게 됐다.

메이저리그에서 기록한 강정호의 4타점은 개인 최다이며, 지난해 9월 10일 신시내티 레즈전에서 만루홈런으로 4타점을 기록한 이후 두 번째다.

첫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난 강정호는 3회말 1사 만루에서 시애틀 선발 제임스 팩스틴과 8구 대결을 벌인 끝에 볼넷을 골라내 밀어내기로 1타점을 추가했다. 강정호는 7회말 1사 만루에서 좌익 선상을 타고 흐르는 3타점 2루타를 쳐내고 팀 승리에 핵기를 박았다.

피츠버그는 10-1 대승을 거뒀다. 선발에서 빠진 시애틀의 거포 이대호는 8회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투수 타석에 대타로 나왔지만,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오승환은 뉴욕 메츠전에서 5-4로 앞선 9회말 마운드에 올라 1이닝 무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오승환은 첫 타자인 알레한드로 데 아자를 5구 만에 좌익수 뜬공, 다음 타자 후안 라가레스는 1B-2S 시속 94.6마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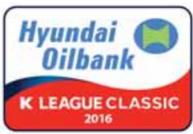
(약 152.2km) 직구로 헛스윙 삼진을 잡아냈다.

마지막으로 아스트루블 카브레라도 1B-2S 시속 95.9마일(약 154.3km) 강속구로 좌익수 뜬공으로 처리, 경기를 끝냈다.

특히 카브레라에게 던진 4개의 공은 모두 시속 94마일(약 151.2km)이 넘었다. 완벽하게 승리를 지킨 오승환은 시즌 6호 세이브를 기록했다. 이를 연속 세이브다. 평균자책점은 1.75에서 1.72로 내려갔다.

김현수는 콜로라도 로키스와 홈 경기에 2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김현수는 4회말 무사 1루에서 콜로라도 우완 선발 존 그레이의 시속 151km 직구를 받아쳐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쳤다. 전날 메이저리그 복귀전(3타수 1안타 1볼넷)에 이어 이날도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김현수는 이후 타석에서는 모두 범타로 물러났다. 볼티모어는 1-3으로 패했다. /연합뉴스

# ‘달궀진 창’ 광주FC, 전북 ‘방패’ 뚫는다



내일 K리그 클래식 23R 원정  
정조국 절정의 골 감각으로  
창단 첫 ‘골리앗’ 격파 노려

‘킬러본능’을 앞세운 프로축구 광주FC가 전북 현대 사냥에 나선다.

광주는 오는 30일 오후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2016 K리그 클래식 23라운드 전북 현대와의 원정 경기를 치른다. 무승고리를 끊은 광주는 달궀진 창을 앞세워 전북의 무패 행진도 끊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지난 라운드 상주 상무와의 경기에서 4-0 대승을 거두면서 4경기 연속 무승(2무2패)에서 탈출했다. 승점 3점을 더한 광주는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했다.

4골을 만들어낸 것은 물론 무실점 승리를 장식하면서 공수 양면에서 안정감을 찾은 게 큰 소득이다. 올림픽 대표팀 차출로 우려됐던 이찬동과 박동진의 공백에서 벗어난 점도 고무적이다.

상주전에서 14호골을 터트리면서 광주의 한 시즌 개인 최다 골과 자신의 한 시즌 개인 최다 골 기록을 동시에 경신한 정조국(사진)의 활약은 여전히 믿음직하다.

거침없는 정조국은 기록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K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정조국은 프로통산 300경기에 4경기를 앞두고 있으며, 역대 9번째 100호 골 기록에도 단 2골을 남겨두고 있다. 전북을 대표하는 골잡이 이동국과의 ‘결정력 싸움’에 관심이 쏠린다.

전북전을 앞두고 더욱 긍정적인 건 광주 선수들이 고루 공격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주전에서 송승민, 주현우, 오도

현이 골 맛을 보며 정조국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특히 송승민의 활약이 눈에 띈다. 송승민은 경기 시작 4분 만에 헤딩골을 넣으면서 상주전 대승을 이끌었다. 무엇보다 활발한 움직임과 돌파로 광주 공격에 날카로운 움을 더하고 있다. 광주가 어떤 상대와 맞붙더라도 좋은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다.

광주의 현재 순위는 7승 7무 8패 승점 28점으로 8위다. 상위 스플릿 마지막인 6위 제주 유나이티드와 승점 차는 3점에 불과하다. 전북을 잡고 상승세를 탄다면 6위 내 진입을 노릴 수 있다. 무엇보다 전북이라는 대어를 잡게 되면 사기까지 오를 수 있다.

광주가 만나게 되는 전북은 클래식 단독 선두다. 시즌 개막 후 13승 9무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역대 최다 연속 무패 기록 경신을 1경기 앞두고 있는 등 전북의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 광주로서는 힘겨운 도전이지만 자신감과 최근 분위기가 뜨겁다. 광주는 올 시즌 전북과 두 차례 대결에서 2무로 패배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기력에서 밀리지 않을 정도로 팽팽하게 맞서며 선두 전북을 당혹케 했었다.

정조국과 송승민을 앞세운 광주가 ‘골리앗’ 전북을 잡고 창단 처음으로 전북전 승리(역대 4무 5패)를 일궈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PGA 챔피언십 25년만에 흑인 레슨프로 출전

와이엇 워딩턴 주니어 “내 인생 대 전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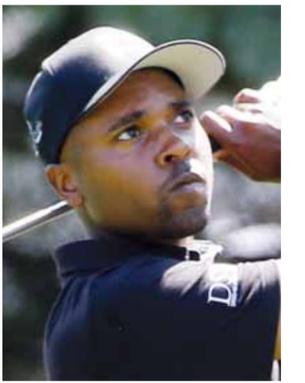
4대 메이저 골프대회 중 하나인 PGA 챔피언십에서 25년 만에 흑인 레슨 프로 골퍼가 대회에 출전하는 기회를 잡았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흑인 골퍼 타이거 우즈(미국)가 세계 정상에 군림하는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프로골프계에서 흑인 선수를 찾기는 쉽지 않다.

백인들이 주를 이루는 프로골프에서 골프장에서 회원들을 가르치는 레슨 프로인 와이엇 워딩턴 주니어(29)가 PGA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흑인 레슨 프로가 이 대회에 출전한 것은 1991년 톰 우드워드 이후 25년 만이다.

워딩턴은 이번 주 열린 PGA 클럽 프로 챔피언십에서 6위에 올라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대결하는 PGA 챔피언십 출전권을 따냈다.

워딩턴은 “아직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되지 않는다”며 “내 인생의 대 전환점이 됐다”고 기뻐했다.

13세에 골프를 시작한 워딩턴은 타이



거 우즈 재단에서 우즈로부터 레슨을 받게 됐다.

25년 전 대회에 출전한 우드워드를 만나 격려를 받은 워딩턴은 “어린 선수들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